

II. 교당 교화의 변화와 대응책

김대선 위원*

(수위단회 교화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여는 말.....	13
2. 본론.....	14
3. 맺는 말.....	17

1. 여는 말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여부에 따라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 근거로 1997년 대선공약에서의 근로제도 개선, 98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로 임금, 근로시간, 휴가제도의 개선 등을 논의, 2000년 대통령의 근로시간 단축관련 검토 지시 후 금년 7월 국무회의에서 주 5일 근무제의 필요성을 개진한 후, 8월에는 정부가 조г시행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이에 교단에서도 지난 9월초 교정원 간부 회의, 10월초 수위단회 교화상임위원회에서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대처 방안과 정책 논의가 진지하게 논의되었던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도입 효과로는 경기진작, 고용창출, 삶의 질 향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으로 산업, 문화, 교육, 관광레저 분야의 변화는 물론 사회적인 풍속도나 생활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계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기독교나 가

* 김대선 위원 : 원기 86~88년까지 수위단회 총무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서울교구 성동교당 주임교무로 근무하고 있다.

톨릭은 주일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문제로 찬반양론이 분분하지만, 신학적인 이론을 정립하고 사목대안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변화에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불교에서도 주 5일 근무제가 사찰에서의 신행생활을 위해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난 정기국회에 상정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을 마련 ‘입장료 징수 확대’ 관련조항으로 현재 70여 사찰에서 받고 있는 입장료를 전국 8백여 사찰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이 분분하였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현행는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만 입장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전국 모든 사찰에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게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 사찰은 포교의 숨통을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주 5일 근무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되나 뜻있는 불교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범불교계는 환영할 것으로 믿는다.

반면에 교당 교화자는 매우 힘든 교화여건을 극복해야 된다. 그동안 교당 교화의 모델선정은 물론 도·농간 교화성장과 성공사례조차 분석하지 못하고, 21세기 문화의 시대와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였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교당교화의 위기는 자명하다. 따라서 법회출석률이 저하되어 교도가 감소되며 잠자는 교도가 더욱 증대함에 따라 유지금 등 재정이 열악하여 교당의 빈익빈 부익부로 성장과 쇠퇴하는 교당이 구분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단에서는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시기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부터 다양한 교화의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교당에 공급하여 주는 교화행정이 우선되고 교화마인드인 교단적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현장교화가 활성화 될 것이다.

2. 본론

현대인의 생활문화에 주 5일 근무제는 가족의 중요성이 가장 극대화 될 것이다. 그동안 직장 근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족간 함께하지 못했던 레저와 취미활동 등이 활발하고 자기계발에도 충실하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교당교화의 변화도 다양하게 전개될 것이 확실하다.

첫째, 법회시간의 다양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간 교당에서 일요일만 법회시간을 운영하였으나 주중인 화요일~일요일 등 어느 때를 막론하고 법회와 시간(새벽, 오전, 오후, 저녁)의 다양화가 요구될 것이다. 더욱이 교당 교화를 탄력화하기 위해서는 월중법회를 특성화하는 법회운영도 필요하다. 월 1회 교화단 교화나 가족교화중심으로 교당이나 훈련원에서 2박3일(금~일)간 훈련을 겸한 법회도 고려할만 하다. 또한 교화도 네트워크화 하여야 한다. 자기 교당만 주장하면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진다. 성지순례와 산행과 관광때의 법회는 연합하고 교구·지구활동을 통한 교도간의 교류도 활발하게 협력하여 법정도 돈독히 해야 한다. 월초기도와 보은기도를 음력초하루와 보름에 각각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며 절기에 부합된 전통의례 문화를 수용함도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민족이 함께 공존하므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상설법회도량이 곳곳에 있어야 한다.

특히 대산 종법사께서 곳곳에 훈련원을 개설하신 큰 뜻을 살려 전국 훈련원의 효율적 운영과 프로그램의 토착화가 시급히 요청된다. 그러나 법회는 모든 교도의 수행을 대조하고 지견을 연마하게 하는 법회인 만큼 법을 훈련하며 신앙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개(個)교당 법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둘째, 교당이 지역사회를 향도하는 순기능의 도량(道場)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식정보화시대이므로 전문화되지 못하면 대열에서 밀려나듯이 사회구성원들이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자기계발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우리 교당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개발해야 한다. 따라서 교당 교화도 특성화 내지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곳에 가면 전문인의 지도로 기능을 전수하고, 이곳에 오면 교무의 지도로 영성이 맑아지고 마음공부를 통하여 진리를 각득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교화의 도량이 되어야 한다. 이렇듯 교당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선방, 전통문화와 청소년 교실, 실버교실과 외국인 근로자 종합센터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차별화한 교화의 도량이 되어야 성장할 수 있다. 특히 학교교육이 변하므로 청소년 프로그램의 집중적인 개발과 투자가 선행되어야 교단의 전망이 양양하다. 더욱이 청소년 수련원의 수탁을 통한 청소년 놀이문화와 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개방, 인도하여 도덕성 회복 등 가치관 확립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셋째, 사이버 교화의 운영이다.

인터넷을 통한 교리, 설교, 마음공부 등 온라인 교화시스템의 운영이 절대 필요하다. 물론 원음방송국을 통한 대량교화가 되고 있지만, 공중과 방송의 한계는 있을 것이다. 미래의 동량인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인 지구촌을 헤집고 다닌다. 인터넷 교당이 온 우주를 대변할 수 없듯이 각 교당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유아놀이, 청·장년의 결혼과 취업문제, 노인들의 욕구인 노후건강과 생사윤회 등 장례문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사이버 공간에서도 함께해야 한다. 요즘 벤처시장이 뜨겁듯이 인터넷 시장에 원불교의 수많은 상품들이 진열되어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매출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요즘 인터넷상의 동아리 모임이 활발하듯이 소공동체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참여 혹은 교단이나 교구에서도 인터넷 TV방송을 개설하여 계층간 욕구를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교단의 의지로 공급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교당의 기능은 총체적 상황에서 보면 나름대로 나약하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열악하면 지방행정이 원활하지 못하듯이 중앙총부가 제반 분야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교구나 교당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인사와 재정, 각종 행정서비스(교도의 전·출입 문제) 뿐만 아니라 교화의 인적, 물적, 프로그램 등이 풍성해야 할 것이다. 간혹 수위단회 집단지도체제 등을 말해왔듯이 공의수렴 등으로 교단의 축이 되고, 여론수렴을 통한 교단의 비전을 제시하여 시행과 분석을 제도화하는 것도 정착하도록 하자.

또한 교단의 연구기관 활성화이다. 지식 인프라가 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듯이 교단의 내일은 연구기관의 몫이다. 연구원의 생명은 좋은 논문을 많이 발표하여 교운을 융창시키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신바람을 넣어주어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보면 너무나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연구원의 부재이다. 이제는 교당하나 기관하나 늘리기보다는 우수한 인재가 일생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많아야 한다. 그래야만 교법구현과 교리의 생활화, 소태산 대중사의 경륜과 포부도 학술과 문화의 토양 속에서 성숙되어야 대중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교단의 의지는 일원문화의 창출이다. 세계문명을 이끌어 온 종교문화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극찬을 받고 있다. 이는 정신문명을 일

깨우는 일에 문화의 토착화가 빚어낸 결실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문화는 일상생활의 의식주와 같다고 생각한다. 소태산 대종사의 사상을 한층 더 인류의 사상으로 고양시키려면 원불교 문화의 대중화밖에 없다. 원불교 문화는 전통문화와 맥락을 같이 해야 하며, 사소한 생활용품과 교구(敎具)부터 한국적이고 전통을 계승하는 문화의 창출만이 교세신장을 가져올 것이다.

3. 맺는 말

최근 서양 사람들이 동양사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티베트불교에 지대한 연구와 체험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한국사회에서도 마음에 관한 수련단체가 급증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특히 교단에서도 마음공부가 대중화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교화의 상승효과는 클 것이며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교화단 교화 등이 활성화될 것이며 교역자의 신뢰도가 약진하여 교무의 역할이 지역사회에서 매우 존경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교단에 대한 깊은 애정 있는 지인들의 바람은 원불교도 성공한 벤처사업의 모델을 연구하여 벤처를 통한 교세 확장과 청소년에 대한 비전만이 성공한 교단이 될 것이라고 충고를 하고 있다.

하여튼 주 5일 근무제로 야기된 교당교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응하는 방법은 외부의 정책이나 제도도 중요하지만 우리들 스스로 ‘교무의 새로운 교화 패러다임의 전환’이 궁극적인 과제다. 또한 가족중심적인 교화를 지향하고 가족교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행복하고 진급하는 모범적인 가정으로 인도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켜 건전한 레저문화로 주말을 보낼 수 있는 전략을 연대하는 등 교당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본질적인 사명을 담당하기 위한 ‘교화 패러다임의 전환’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듯 교화자의 역할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현실에서 교당은 지역사회의 정신문화 도량으로 가정과 사회의 병리현상을 치유하여 도덕성 회복에 기여하고 학술과 전통문화 지킴이 등 다양한 소공동체 모임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가야만 교화의 비전과 활력화가 보장될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의식의 전환은 교화자의 처우개선이 보장되고 현실화되어야 자질

향상은 물론 교회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려면 인재양성과 교학연구에 0순위를 두어야 변화의 세기를 향도하고 미래를 풍성하게 열어갈 것이다.